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윤곽

시, 건립 위한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최종 당선작 선정

전주 효자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복합복지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주)복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건축무한의 '너나들(너, 나, 우리가 드나드는 곳)'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자동 전일고등학교 인근 사유지에 건립되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도시 확장에 따른 복지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자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공간이다.

시는 지난 10월 설계공모 절차에 돌입해 총 5개 작품을 접수한 가운데 지난 2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설계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전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주)복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건축무한의 '너나들(너, 나, 우리가 드나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선정작 조감도.

드는 곳'은 도시와 자연을 잇는 복지 환경조성,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장 조성, 복합복지관에 전주를 담은 디자인, 바위백이공원 옆 지하 알반층을 최대한 고려해 설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이달 중 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 의자 편안해진다

시, 내년 6월까지 총 36억원 투입 4만2000여 석 규모 전면 교체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이 넓고 편안한 의자로 전면 교체된다. 경기 내내 서서 응원하는 스탠드존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장돼 전주시의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비 36억 원을 투입해 4만2000여 석 규모의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 의자를 전면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 스포츠타운의 상징이 됐다.

시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을 개최를 위해 총 118억 원(기금 9억, 특교 15억, 도비보조금 15억, 시비 74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투입해 경기장 전광판을 교체해 FIFA 시설 공인기준을 충족시키는 한편,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음향장비와 방송설비 설치 △FIFA 권장기준에 적합한 그라운드 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경기장 내 주차장, 도로 개선공사를 통해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주말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특별 노선인 '1994번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시민 친화 경기장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은 K리그 사상 첫 5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전북 전광판을 교체해 FIFA 시설 공인기준을 충족시키는 한편,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음향장비와 방송설비 설치 △FIFA 권장기준에 적합한 그라운드 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준공한 지 20여 년이 지나 파손되거나 퇴색되고 협소한 의자로 관중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관중들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축구를 볼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해 기존 480mm에서 550mm로 폭이 훨씬 넓어진 접이식 의자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장 북측 스탠딩석도 서포터즈의 의견을 수렴해 그 규모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 관계자들을 만나 관중석 교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서포터즈들도 이끈 시일 내에 만나 스탠딩석 확장 및 관중석 전면 교체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를 위해 종합정비를 한 데 이어 이제 노후 관중석 전면 교체로 축구팬들의 숙원을 풀어 줬다"면서 "전주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현대 모터스는 K리그 최초의 리그 5연패 및 통산 9회 우승을 달성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역사전통·문화·관광 확고한 도시 정체성·우수 기반시설 갖춰

대한민국 대표 전문문화도시 전주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는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감성'의 정신을 실천하자

는 데 합의한 뒤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도시이자 국제제로시지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시는 역사전통·문화·관광이라는 확고한 도시 정체성과 숙박, 교통 등

우수한 관광기반 시설을 갖춰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 다수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도 있는 만큼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개최지로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쌓아온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폐막식 등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동아시아 정원문화전 △동아시아 음식문화축제 △동아시아 전통·세계 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교향악 축제 △한·중·일 청년 학술대회 △동아시아 무형유산박람회 등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관 운영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민 탐방대 운영 △동아시아 문화도시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연중 개최하기로 했다.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선

포는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이뤄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2019년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관광 대표선수가 됐다"면서 "이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또한 이를 상징적으로 뒷받침하는 연이은 쾌거로, 한·중·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고 K-문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도시'에는 △2014년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2015년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2016년 한국 제주도, 중국 닝보, 일본 나라 △2017년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2018년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 △2019년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 시마무 △2020년 한국 순천, 일본 기타큐슈, 중국 양저우 △2021년 한국 순천, 일본 기타큐슈, 중국 사오싱·둥황 △2022년 한국 경주, 일본 오이타현, 중국 지난·윈저우 등이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간정보 자료 구축 겨울철 도로·제설 즉각 대응

전주시가 지도 기반 제설 노선과 교통정보 CCTV 영상 등을 연계해 겨울철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전주 전역의 도로제설노선을 공간정보시스템에 시각화 자료로 구축해 도로제설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통정보 CCTV 영상과 연계해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를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한 시는 이번에 △도로제설노선(80개) △도로열선 설치구간(14개소) △자동열수 분사구간(3개소) △이면도로 취약구간(217개소) 등 4종 314개소의 자료를 확대 구축 완료했다.

시는 제설용 CCTV 15개소와 교통정보 CCTV 67개소의 실시간 영상자료를 연계해 도로 및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겨울철 강설 시 즉각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우수 상생발전기업 3곳 선정

한실어패럴·금강유리·전주병원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상생발전기업 3곳에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한실어패럴(대표 박연옥) 등 3개 업체를 선정하고, 각 업체에 경영환경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수 상생발전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온 업체를 전주시가 선정하는 것으로,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취지에서 지난해 시작했다.

시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 중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3개 분야 우수 상생발전기업 모집에 나선 결과, △제

조업 분야 한실어패럴(대표 박연옥) △건설업 분야 (주)금강유리(대표 김정곤) △서비스업 분야 전주병원(대표 최정웅) 등 3곳을 올해의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역 근로자 고용과 매출 증가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상생, 지역과 함께하는 기부와 선행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선정된 우수 상생발전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업체별로 경영환경개선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기업 활동 우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 (주)테크카본(대표 김광수) △건설업 분야 (주)전건설(대표 한상남) △서비스업 분야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